

17세기 훈련도감의 인쇄·출판 활동*

Printing and Publishing of Hunryondogam(訓練都監) in the 17th Century

송 정 숙(Song, Jung-Sook)**

◁ 목 차 ▷

1. 서 론	3.4 서적의 인출 담당부서
2. 훈련도감의 설치와 경제활동	3.5 인출한 책의 유형
2.1 훈련도감의 설치	4. 훈련도감 간행본의 분석
2.2 훈련도감의 경제활동	4.1 주제
3. 훈련도감의 인쇄·출판 활동	4.2 간행연도
3.1 인쇄·출판 활동의 시작	4.3 활자체
3.2 판매용 서적의 인쇄·출판	5. 결 론
3.3 목활자의 제작 이유	<참고문헌>

< 초 록 >

이 연구에서는 임란 직후인 1594년에 설치된 군사기구인 훈련도감이 서적의 인쇄·출판에 참여하게 되는 과정과 출판한 책들의 전모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훈련도감 간본의 주제, 간행연도, 활자체 등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훈련도감은 임란 후에 임시로 설치된 기관이므로 운영경비가 미리 책정되어 있지 않았다. 그리하여 둔전을 경영하여 운영자금과 병사들의 급료를 부담하였는데, 둔전의 폐해가 보고되면서 광해군 즉위 초에 둔전이 혁파되었다. 둔전이 혁파됨으로 인해 자금 확보가 용이하지 않자 경비조달을 위해 서적을 인출하여 판매하였다.

훈련도감은 설치 이후 군사훈련 등 기관 운영을 위한 필수서적이거나 국가 경영에 필요한 서적을 인출하다가 재정상황이 어려워지자 광해조 이후 자금 조달을 위한 수익사업으로 서적을 인쇄·출판하여 판매하였다. 따라서 훈련도감의 서적 인출은 기관내부용과 판매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군사 훈련을 위한 병서 출판이 내부용이라면 일반 대중을 위한 시문집 출판은 판매용이고, 국가기관이므로 국정 수행의 필요에 의해 서적을 인출하기도 하였다.

훈련도감에서 간행하였거나 훈련도감 목활자로 간행한 서적을 주제별로 분석하면, 집부 34종(37%), 자부 31종(34%), 경부 14종(15%), 사부 12종(13%)의 순이다. 군사기구인 훈련도감에서 인출한 92종의 서적 가운데 40%에 가까운 35종이 집부의 시문집이라는 사실은 판매용 서적인 시문집 출판이 가장 활발했음을 보여준다. 다음이 자부의 서적 인출인데, 군사기구로서 병사 훈련을 위한 병서 출판과 전후의 전염병 수습을 위한 의서 출판이 두드러졌다.

* “이 논문은 2008년도 부산대학교 인문사회연구기금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이 논문은 2008년 9월 4일 청주에서 개최된 <2008 청주직지축제기념 조선왕실주조 금속활자 복원사업 관련 학술회>에서 발표한 “훈련도감의 인쇄·출판 활동”을 수정·보완한 것임.

** 부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교수(songjs@pusan.ac.kr)

접수일: 2009년 6월 3일 최초심사일: 2009년 6월 5일 심사완료일: 2009년 6월 11일

서적을 인출한 시기는 「무경총요행군수지」가 간행된 1599(선조32)년부터 「기효신서」가 간행된 1664(현종5)년까지 65년 동안으로서 이 기간 동안 92종을 간행하였다. 훈련도감 간본의 추이를 역조별로 보면, 광해조(51%), 인조조 22종(24%), 선조조 12종(13%)의 순으로 출판이 이루어졌으며, 광해조에는 둔전의 혁파로 인해 판매용 서적의 인출이 활발하였기 때문이라고 파악된다. 훈련도감이 국가 기구이므로 집권세력인 서인과 관련이 깊은 인물의 문집이 인출되었다. 현종 이후에는 훈련도감 간본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은 도서관의 기능 회복과 관련이 깊다고 보아진다.

훈련도감에서 인출한 간본의 활자체는 을해자체가 28종(30%), 갑인자체 25종(27%), 경오자체 9종(10%), 갑진자체 6종(7%)의 순이다. 을해자체 훈련도감자와 갑인자체 훈련도감자 인본이 53종(57%)로서 전체의 반이 넘는 것으로 볼 때, 이 두 활자체가 대중적인 인기를 누린 것으로 보인다.

훈련도감은 전후의 어려운 시기에 도서관을 대신하여 국가의 주요한 지식과 정보의 유통에 크게 기여하였을 뿐 아니라 일반 선비들의 지식과 문화 향수의 욕구를 충족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要語: 훈련도감, 훈련도감본, 훈련도감 목활자, 훈련도감 목활자본

<ABSTRACT>

The aim of this paper is to explore the procedures which Hunryondogam(訓練都監) established in 1594 got to participate in printing and publishing books, and analyze the subjects, publication dates and styles of wooden movable types of its publications. Major finding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Since Hunryondogam was established for national security after the Japanese invasion of the Joseon in 1592, the budget for operation was not assigned. Hunryondogam, therefore, run farms cultivated by soldiers to earn money for its operation and wages for soldiers, but because of corruptions and problems, those farms were abolished since the enthronement of Kwanghaekun(光海君). Hunryondogam which used to publish books only for military use and national operations, then, began to publish books for sale in order to make money.

There were 92 titles of books printed with wooden movable types by Hunryondogam. An analysis of their subjects shows that 34 titles (37%) were anthologies, the subject of 31 titles (34%) were medical science and military science, and 14 titles (15%) were the Confucian classics.

47 titles (51%) were published in the reign of Kwanghaekun(1608-1623), and 22 titles (24%) and 12 titles (13%) were published in the reign of King Injo(1623-1649) and the reign of King Sunjo(1567-1608), respectively.

28 titles (30%) were printed with wooden movable types in the shape of Ulhae-Ja(乙亥字), and 25 titles (27%) and 9 titles (10%) were printed, with wooden movable types in the shape of Kabin-Ja(甲寅字) and the shape of Kyungo-Ja(庚午字), respectively.

Key words: Hunryondogam, wooden movable types made by Hunryondogam, books printed or published by Hunryondogam

1. 서론

임진왜란 중에 임시로 설치된 군사기구인 훈련도감이 나무활자를 만들어 책을 인쇄·출판함으로써 임란후의 혼란기에 지식과 정보의 유통에 크게 기여하였다. 훈련도감 목활자본에 대한 현재까지의 연구에 의하면, 훈련도감은 운영경비를 조달하기 위해 둔전법을 실시해 왔지만 그것만으로 자급자족이 어려워 유희병력을 이용하여 나무활자를 만들어 책을 찍어주고 경비의 부족을 충당하였다¹⁾고 한다.

그런데 훈련도감은 기관의 운영 경비 조달을 위한 서적 인출과는 무관하게 내부에 인쇄를 위한 조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훈련도감이 운영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 인쇄·출판사업에 참여한 것은 이항복에 의하면, 둔전 혁파 이후라고 한다. 선조는 둔전 혁파 이전에 훈련도감에 「기효신서(紀效新書)」를 인출하라고 지시하였다. 이로 볼 때 훈련도감에는 병사의 교육과 훈련을 위한 군사서 인쇄·출판 전담 기구가 있었는데, 둔전 혁파를 계기로 훈련도감에서는 군사들을 위한 급료 지급이 원활하지 않자 판매용 서적의 인쇄·출판에 참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훈련도감의 서적 인출은 훈련도감의 기능 수행을 위한 군사서 출판과 경비조달을 위한 판매용 서적 출판으로 구분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군사기구인 훈련도감에서 인쇄·출판활동에 참여한 시기는 언제이며, 어떤 책들을 언제 인쇄·출판했을까? 이 가운데 판매용으로 인출한 책들은 무엇일까? 그리고 어떤 계기로 판매용 서적을 출판하게 되었는가? 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이러한 의문을 해결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이러한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군사기구인 훈련도감이 생산한 「훈국등록」, 「훈국총요」 등의 원자료와 훈련도감에 대한 내용이 기록된 「선조실록」이나 「광해군일기」 등 훈련도감이 설치된 이후의 실록이나 「승정원일기」, 훈련도감에 관

1) 金斗鍾, “壬辰亂後의 活字印本: 實錄字와 訓練都監字,” 『진단학보』 제29·30호, 343-348. ; 錢혜봉, 『한국목활자본』(서울: 범우사, 1993), 42. ; 錢혜봉, 『韓國古印刷史』(서울: 한국도서관학연구회, 1976), 226-240. ; 金秀亨, “訓練都監字本에 關한 研究,”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1978).

여한 인물들의 문집과 훈련도감에 대한 연구서들을 살펴보면서 훈련도감이 경제 활동, 특히 인쇄·출판사업에 참여하게 된 배경과 이를 담당했던 훈련도감 내의 조직에 주목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훈련도감에서 인출하였거나 훈련도감 목활자로 인출한 서적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실록이나 문집 등에 언급된 훈련도감 간본과 선행연구 및 규장각을 비롯한 주요 도서관의 장서목록에 언급된 훈련도감 목활자본을 조사하여 훈련도감 목활자본의 주제, 간행연도, 활자체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조선조 서적 인쇄·출판의 역사에서 훈련도감의 위상을 자리매김하고자 한다.

2. 훈련도감의 설치와 경제활동

2.1 훈련도감의 설치

1593(선조 26)년 1월에 평양이 수복되었을 때, 선조가 도독(都督) 이여송에게 가서 사례하고 명나라 군사의 전후 승패가 다른 점을 물었다. 이여송이 말하기를, “전에 온 북방의 장수는 항상 호적(胡賊)을 방어하는 전법을 익혔기 때문에 싸움이 불리하였고, 지금 와서 사용하는 것은 바로 척계광(戚繼光) 장군의 「기효신서」인데, 곧 왜적을 방어하는 법이라서 전승(全勝)하게 된 것입니다.” 하였다. 이에 선조가 「기효신서」를 보여 달라고 하니, 이여송이 내놓지 않았다. 선조가 비밀히 역관으로 하여금 이여송 휘하의 사람에게 사오게 하였다. 선조가 해수에 있을 때 「기효신서」를 유성룡에게 보이면서 이르기를, “내가 천하의 서책을 많이 보았

2) 「기효신서(紀效新書)」: 명 나라 무장(武將) 척계광(戚繼光)이 지은 병서(兵書). 왜구가 명 나라의 연해를 침범하자 척계광이 새로운 전술로 많은 성과를 올렸는데, 이때의 경험을 토대로 이 책을 지었다. 조선에서도 임진왜란 후에 군제(軍制)를 개편하여 훈련도감(訓練都監)을 신설하고, 명군(明軍)과 왜군(倭軍)의 무기·무술을 모방하여 훈련할 때도 이 책에 의거해서 총병(銃兵)이 포수(砲手), 궁병(弓兵)인 사수(射手), 창검병(槍劍兵)인 살수(殺手)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 실시하였으며, 지방에도 초관(哨官) 또는 속오군(束伍軍)을 두어 훈련시켰다.

지만 이 책은 실로 이해하기 어렵다. 경은 나를 위해 강론하고 풀이해 주어 그 법을 본받게 하라.” 하니, 유성룡이 종사관 이시발(李時發) 등과 토론하고, 또 유생 한교(韓嶠)를 얻어 낭속(郎屬)으로 삼아 명나라 장수의 아문에 질문하는 일을 전담케 하였다. 그해 10월에 선조가 도성으로 돌아와 1594년 2월에 훈련도감의 설치를 명하고, 유성룡을 도제조로, 무재신(武宰臣) 조정(趙儼)을 대장으로, 병조판서 이덕형(李德馨)을 유사당상(有司堂上)으로, 문신 신경진(辛慶晉)·이홍주(李弘胄)를 낭속으로 삼았다.

끓주린 백성들을 모집하여 군대를 편성하니, 응모자가 자못 모여들었으므로 조경이 법을 만들어 한정시켰는데, 큰 바위 하나를 들 수 있고 한 길 되는 담을 뛰어넘을 수 있는 자를 합격시켰다. 10일에 걸쳐 수천인을 뽑아 척계광의 삼수연기(三手練技)의 법으로 가르치는 한편, 과총(把摠)·초관(哨官)을 두어 군사를 나눠 실제 척계광의 제도대로 연습시키니, 몇 달 만에 군용(軍容)이 갖추어졌다.

선조가 습진(習陣)에 친히 임한 이후로 도감군(都監軍)은 항상 숙위(宿衛)와 호종(扈從)을 하게 하였는데, 나라에서 이 군대의 힘에 많이 의지하였다. 유성룡이 인하여 청하기를, “군량을 마련하고 군사 1만 명을 더 모집한 다음, 경성에 5영(營)을 두어 영마다 2천 명씩 배치하고, 해마다 절반은 도성 안에 두어 연습을 시키고, 절반은 도성 밖에 내보내 버려진 땅을 택하여 둔전(屯田)을 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교대로 경작하여 군량이 나오는 근원을 풍부하게 해서 더욱 근본을 견고히 해야 합니다.”고 하였다.³⁾ 이렇게 창설된 훈련도감은 둔전을 두어서 훈련도감의 운영을 위한 자금을 충당하였다.

임진왜란은 조선과 중국, 일본 세 나라가 참전한 전쟁이었기 때문에 동양 삼국의 군역제가 극명하게 비교되었다. 이 시기 국왕과 관료들은 임진왜란 초기의 패전 원인을 구명하는 가운데, 조선측 군사력의 열세가 조총의 부재뿐만 아니라 군역제에도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였다. 일본이나 중국은 모두 병농분리(兵農分離)로서 군인들이 급료를 받으면서 생활하여 평소 훈련에 전념하는 반면, 우리나라

3) 『국조보감』 제32권, 선조조 9, 27년(갑오, 1594) 2월. 훈련도감을 설치하고 유성룡을 도제조로 삼았다.

라는 병농일치(兵農一致)로서 군인들이 농사일 때문에 군사훈련을 등한시 한 것이 군사력의 열세를 가져왔다. 이에 1593(선조 26)년 2월에 선조는 비변사에 군역제 개혁을 강구하라고 지시하였다. 병농분리적인 훈련도감의 성립은 이러한 분위기에서 이루어질 수 있었다.⁴⁾

이처럼 훈련도감은 임진왜란 때 일본군의 조총(鳥銃)에 대항하기 위하여 기존의 활과 창으로 무장한 부대 외에 조총으로 무장한 부대를 만들었다. 즉, 화포와 창기를 사용하는 포수(砲手), 활을 사용하는 사수(射手), 칼과 창을 사용하는 살수(殺手)의 삼수병(三手兵)으로 구성된 특수부대를 운용하였다. 병사들은 쌀 4~9말의 급료를 받으며 한양 인근에 주거하는 장기복무 장병들이었다.⁵⁾

훈련도감에서 병사의 충원은 모집에 의해서 이루어지다가 전란이 평정되고 난 후 모집에 응하는 사람이 줄어들자 승호제(陞戶制)를 실시하여 충원하였다. 이들은 각 지방에서 승호 대상으로 지정되어 살림살이와 토지를 모두 팔아버리고 처자를 거느리고 서울에 올라와 생활하여야 했다. 따라서 도감군 중에는 훈련도감에서 지급하는 급료와 보포로는 생활하기 힘든 경우가 많았다. 이들은 훈련도감에서 지급하는 1개월에 9두의 급료와 1년에 9필의 면포로는 서울 생활을 이어나가기 힘들었다. 따라서 이들은 근무 외의 시간을 이용하여⁶⁾ 각종 수공업품을 제작·판매하고 상업 활동에도 참여하였다. 이것은 조선후기 상업과 수공업의 발달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⁷⁾

2.2 훈련도감의 경제활동

훈련도감은 임진왜란 중에 일본 조총의 위력을 목격하고 포수 양성의 필요성이

4) 김종수, 『조선후기 중앙군제연구』 (서울: 혜안, 2003), 137.

5) 위키백과, “훈련도감,”

<<http://ko.wikipedia.org/wiki/%ED%9B%88%EB%A0%A8%EB%8F%84%EA%B0%90>>, 2008. 10. 5 접속.

6) 김종수, 『잊혀진 기록』, 125-126.

7) 김종수, 『잊혀진 기록』, 15.

제기되면서 임시기구로 설치되었다.⁸⁾ 병사들의 급료 지급과 운영을 위한 군량은 국가의 경비에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재원 마련을 위해 전란 후의 유희지나 황무지를 개간하여 둔전을 개설하여 운영하고자 하였다.

1599(선조 27)년 7월에 훈련도감 당상으로 있던 이덕형은 둔전 개간에 필요한 우마 등 물자와 재정 지원을 한 자에게는 공명고신 발급을 주청했고, 선조는 이를 수용했음을 다음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

선조 27년 7월 8일(갑신)에 훈련도감이 아뢰기를,
“전일 이덕형(李德馨)이 도감 당상(都監堂上)으로 있을 때 명년에 포수 등에 게 둔전(屯田)을 널리 개간하게 하기 위하여 공명 고신(空名告身)을 황해도 총섭(黃海道總攝)인 승(僧) 의엄(義嚴)에게 보내 소[牛]를 모으게 하였습니다. 이번에 의엄이 팔갈이하는 소 33두(頭)를 보냈는데, 그 중 1두를 바친 자가 영직(影職) 참봉(參奉)을 요구하나, 내려보낸 고신 중에는 참봉 직명이 없다고 합니다. 참봉 고신을 해조(該曹)로 하여금 만들어 보내게 하소서. (후략)”
하니, 상이 따랐다.⁹⁾

이어 그 해 9월 22일에 선조는 훈련도감 병사의 군량 조달 방법으로 둔전을 개간하도록 승정원에 명령하였다.

“양병(養兵)하자면 모름지기 먼저 농사에 힘써 곡식을 비축해야 한다. 지금 도감(都監)의 포수(砲手)와 살수(殺手)는 그 수효가 날로 증가되는데 군량을 이어낼 방법이 없다. 경성(京城) 성곽 주변의 양전(良田) 가운데 주인이 없는 땅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 어찌하여 각 초병(哨兵)들에게 나누어 지급하고 종곡(種穀)과 경우(耕牛)와 농기(農器)를 갖춰 공급하여 둔전을 대대적으로 개간하여 군사들을 먹일 자본으로 삼지 않는가? 비록 살곶[箭串]이나 정금원평(鄭金院坪)이라도 우선 분급하라고 비변사에 말하라.”¹⁰⁾

8) 훈련도감은 1593년 유성룡이 주장하여 처음에는 임시 기구로 설치되었다가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점차 상설 기구가 되었고, 1746년(영조 22년)에 법제화 되었으며, 1882년의 임오 군란으로 인해 폐지되었다. 위키백과, “훈련도감,”
<<http://ko.wikipedia.org/wiki/%ED%9B%88%EB%A0%A8%EB%8F%84%EA%B0%90>>, 2008. 10. 5 접속.

9) 「선조실록」 권53, 선조 27년 7월 8일(갑신).

10) 「선조실록」 권55, 선조 27년 9월 22일(정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량의 확보가 용이하지 않았음을 다음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

선조 29(1601)년 1월 7일에 선조가 이덕형에게 이르기를,
“나는 늘 적이 끝내 물러가지 않고 반드시 후미(後尾)를 남겨둘 것이라고 생각한다. 도감(都監)의 훈련하는 일을 더욱 단속하여 혹시라도 게을리하지 않으면 적이 비록 다시 침략해 오더라도 한 모퉁이는 수비할 수 있을 것이다.”
하니, 덕형이 아뢰기를,
“군사는 적지 않으나 군량을 이어갈 길이 없습니다. 도감에서 공급하는 양식도 지금 막 떨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어렵습니다.”¹¹⁾

그리하여 훈련도감에서는 다음에서 보듯이 도감의 운영과 도감군의 급료를 지불하기 위해 둔전 경영 이외에도 채원 조달을 위해 생선과 소금을 판매하는 등 경제 활동에 참여했음을 알 수 있다.

선조 35(1603)년 2월에 호조가 아뢰기를, “훈련도감의 군량은 원래 국가의 경비에 책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관아를 설치한 뒤로 둔전(屯田)을 널리 개설하기도 하고, 생선과 소금을 판매하기도 하는 등 식량을 확보할 수 있는 일이라면 크고 작은 것을 가리지 않고 마음을 다하여 계획하였습니다.”¹²⁾

그렇다면 훈련도감에서는 언제부터 서적을 인출하기 시작했을까? 에 대한 의문에 제기된다.

3. 훈련도감의 인쇄·출판 활동

훈련도감은 설치 후 곧 자체에서 필요한 서적 인출을 위한 기능이 존재했던 것으로 추정되며, 경비조달을 위한, 즉 판매용 서적 인출은 훈련도감의 둔전 혁파 이후에 부가된 기능으로 보인다. 따라서 훈련도감의 서적 인출은 내부용과 판매

11) 「선조실록」 권71, 선조 29년 1월 7일(갑술).

12) 「선조실록」 권147, 선조35년 2월 1일(갑오).

용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3.1 인쇄·출판 활동의 시작

1594년에 설치된 훈련도감에서 언제부터 서적을 인출하기 시작했을까? 관련 기록을 찾아보면, 1595(선조 28)년 6월에 선조는 “습진의 절차는 한결같이 중국의 진법대로 하라. 또 그것으로 진서(陣書)를 만들어 인출(印出)하도록 훈련도감에 이르라.”¹³⁾고 하여 「진서」를 훈련도감에서 편찬하여 간행할 것을 명령한 것이 시기적으로 가장 이르다. 1594년에 설치된 훈련도감에 이듬해인 1595년에 「진서」를 인출하라고 명령한 것을 볼 때, 이때 이미 훈련도감에 서적 인출 기능이 존재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즉 내의원에서 의서를 인출하고 관상감에서 역서를 인출했듯이, 훈련도감에서 군사서 인출은 당연한 의무로 군신 상하간에 인지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훈련도감에서 서적의 인출을 담당했던 인력을 병사들의 유후노동력을 이용했다고 보는 것이 이제까지의 일반적인 견해인데, 「선조실록」의 선조 36(1603)년 7월 23일의 다음 기사를 보면 생각을 조금 달리 하게 된다.

묘정(卯正)에 상이 별전에 나아갔는데, 영사 이덕형(李德馨), 지사 한응인(韓應寅), 특진관 대사헌 송언신(宋言愼), 특진관 윤형(尹炯), 대사간 권희(權愷), 참찬관 유몽인(柳夢寅), 시강관 강첩(姜籤), 시독관 이덕형(李德澗) 등이 입시하였다.

언신이 아뢰기를,

“<실록(實錄)>을 인출(印出)하는 일이 하루가 급한데, 공장(工匠)이 갖추어지지 않아 글자를 고르게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장인(匠人) 10명이 하루에 20장을 인출할 수 있는데, 지금 공신도감(功臣都監)에는 장인이 많이 있으나 녹권(錄券)을 핑계로 옮겨다가 일을 돕지 못하게 합니다. 공신을 감정(勘定)할 시기가 아직 멀었으니 그전에 장인이 와서 인출하는 일을 돕게 해야 합니다. 또 청중(廳中)의 장인은 모두 훈련도감에서 옮겨 왔는데, 도감에 있을 때에는 일이 한가하고 능료(料)가 후하였습니니다. 지금은 모두 8두(斗)의 능료만 받으면 서 해가 뜰 때 일하러 나와 해가 넘어가야 파하고 돌아가므로 모두가 괴롭게

13) 「선조실록」 권64, 선조 28년 6월 13일(갑인).

여기고 있으니, 장차 도망치는 폐단이 있을 것입니다. 호조는 번번이 능료를 줄이는 것만 능사로 삼고 장인의 피로움은 헤아리지 않고 있으니, 즉시 호조로 하여금 능료를 더 주게 하여 그들의 능료를 후하게 하고 성과가 있기를 책임지 워야 합니다. (후략)” 하였다.¹⁴⁾

위 기사를 통해 1603(선조 36)년 7월 실록청에서 실록을 인출하고 있던 장인은 모두 훈련도감에서 옮겨 왔으며, 훈련도감에 있을 때에는 일이 한가하고 급료가 후했음을 알 수 있다. 이로 미루어 훈련도감에는 이미 서적 인출을 위한 장인이 배속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현존하는 진서는 서명이 「진설(陣說)」로서, 한효순(韓孝純)이 1603(선조 36)년 함경도 도순찰사(都巡察使)로 있을 때에 고금의 병서 중에서 포진(布陣), 행군(行軍) 등에 관한 기록과 역대 제가들의 병법론(兵法論)을 모아 엮은 병서¹⁵⁾인데, 1603(선조 36)년에 갑인자책 훈련도감자로 간행되었다. 선조가 편찬하여 간행하라고 명령을 내린 것이 1595년인데, 현존하는 진설(陣說) 은 1603년에 인출된 것이니, 8년의 시차가 존재한다. 현존하는 「진설」보다 이전에 간행된 「진서」가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

다음 기록을 볼 때, 훈련도감에서 1604년 이전에 「기효신서」를 인출했음을 알 수 있다.

1604(선조 37)년 12월에 훈련도감이 선조에게 아뢰기를, “진일 도감에서 인 행한 「기효신서」는 척계광(戚繼光)이 절강(浙江)에 있을 때의 초본이고, 내사 하신 「기효신서」는 최후에 군사를 민중(中)으로 옮긴 때의 후본입니다. 따라서 내사하신 후본을 다시 이행해야 마땅합니다.”¹⁶⁾

이로 보아 1604(선조 37)년 이전에 이미 훈련도감에서 기효신서 를 인출했다

14) 「선조실록」 권164, 선조 36년 7월 23일(정축).
15) 陣說 의 목차는 八陣, 六花陣, 鴛鴦陣, 梅花陣, 三才陣, 分數, 腰旗, 腰牌, 章標, 形名(號巾, 號衣, 認旗, 中軍旗幟, 令下旗麾, 中軍金鼓), 結陣, 布陣과 操練(立表, 附表, 用兵, 發放, 練傳令, 練啓行, 詳啓行, 任宿解, 奇伏), 習戰法(大陣習戰法, 梅花陣習戰法, 三才陣習戰法, 鴛鴦陣習戰法), 行軍之法으로 구성되어 있다.
16) 「선조실록」 권182, 선조 37년 12월 16일(신유).

고 보아진다. 즉 현존본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1593년부터 1604년 12월 사이에 훈련도감에서 「기효신서」를 간행했음을 알 수 있다.

3.2 판매용 서적의 인쇄·출판

3.2.1 계기

훈련도감이 서적을 인쇄·출판하여 판매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는 이항복의 문집인 「백사집」 권2의 “훈련도감(訓鍊都監)에서 「한창려집(韓昌黎集)」을 간행한 데 대한 발”에 잘 나타나 있다.

도감에서 둔전(屯田)을 혁파한 이후로는 모든 군량을 충족시키는 방도라면 반드시 세소한 일까지 다 빠뜨림이 없이 추진해 오면서, 간혹 여러 서책을 간행하여 이를 팔아서 군량을 저축하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뒤에 안평대군(安平大君)이 쓴 인본(印本) 두어 서책을 얻어 이를 베껴 새겨서 활자로 만들어 놓으니, 글자 모양이 원만하여 사랑스러웠다. 그래서 이 활자를 가지고 맨 먼저 이 책을 인쇄해 놓으니, 이에 호사(好事)하는 사대부들이 서로 다투어 사려고 달려왔다. 마침내 이것을 팔아서 때에 따라 소모시키기도 하고 불리기도 하면서, 그 잉여분이 축적되자, 고인(庫人)이 여유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그리하여 못 공인(工人)들의 녹미(祿米)를 모두 이자로 충당하게 한 결과, 이자만 가지고도 충분히 충당이 되고 오히려 남은 증식(增息)이 있게 되었으니, 이것이 어찌 양병(養兵)의 이로움만 되겠는가. 또한 무(武)에 문(文)을 붙여서 서로 인연하여 서로 장양(長養)하는 것도 되는 것이다.

다만 한스러운 것이 있다면, 간행하는 책들을 대부분 소질(小秩)을 표준으로 삼아서 팔리기 쉬운 방도를 구하고 있고, 심지어 고경대전(古經大傳)에 이르러서는 마치 <소서(素書)>나 은문(隱文)처럼 여기어 속사(俗士)들이 팔을 내저어 돌아보지도 않으므로, 이 고경 대전을 간행할 겨를이 없는 점이다. 아, 시세(時勢)에 따라 팔아서 장사만 하기로 들면 어찌 서책뿐이겠는가. 차후 이 일을 하는 이들이 만일 이런 일을 좇아 더욱 크게 사업을 벌여 나간다면, 10년 뒤에는 우리 동방의 서적들이 장차 찬란하게 한우(汗牛)를 이룰 것이고 보면, 이 책을 맨 먼저 간행한 것은 다만 큰 강물 근원의 작은 샘이 될 뿐이니, 후일의 군자들은 힘쓸지어다.¹⁷⁾

17) 이항복, 「백사집」, 권2, “훈련도감에서 「한창려집(韓昌黎集)」을 간행한 데 대한 발.”

위 기사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① 훈련도감이 둔전을 혁파한 이후로 군량을 충족하기 위해 서적을 간행하여 팔았다. ② 안평대군이 쓴 인본을 구해 활자를 만들어 책을 인쇄하니 인기가 많았다. ③ 간행하는 책들을 대부분 소질(小秩)을 표준으로 삼아서 팔리기 쉬운 방도를 구하고 있다. ④ 그리하여 고경대전을 간행할 겨를이 없는 것을 한스럽게 여겼다.

3.2.2 시기

훈련도감의 둔전이 언제 혁파되었을까? 둔전이 혁파된 이후 군량을 충족하기 위해 훈련도감에서는 서적을 간행하여 팔았다고 하니, 훈련도감의 둔전이 혁파된 시기는 곧 훈련도감이 판매를 위한 서적 인출 시기를 알려주는 단초가 된다.

광해군 즉위년(1609) 9월에 사헌부가 아뢰기를, “우리 나라는 군사를 양성하는 곳이 한 군데도 없고, 단지 훈련도감에 약간의 초군(哨軍)이 있어서 안에서 의 호위와 밖에서의 방수를 전적으로 여기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감의 설치가 벌써 오래 되어 온갖 기구들이 날로 쇠잔해져서 장차 모양을 이루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지금 둔전이 모두 이미 혁파되어 군량의 수요가 더욱 나올 곳이 없어서, 적은 숫자의 군병도 앞으로 거둘 방도가 없으니 지극히 염려가 됩니다.”¹⁸⁾

위의 실록 기사를 볼 때, 광해군 즉위년인 1609년에는 “(훈련도감의) 둔전이 모두 이미 혁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군사를 거둘 방도가 없음을 염려하고 있었다. 선조조에도 여러 차례 둔전의 폐해가 보고되었으나, 훈련도감의 군량을 마련할 별다른 방안이 없어 둔전이 지속되었으나, 선조가 승하하자 둔전이 폐지된 것으로 파악된다.

「백사집」 권2의 “훈련도감(訓練都監)에서 한창려집(韓昌黎集)을 간행한 데 대한 발”에 잘 나타나 있듯이, 둔전이 폐지된 이후 훈련도감이 재정 확보 방안을 강구하던 중 서적 인출 사업에 진출하였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18) 「광해군일기」 권8, 광해군 즉위년 9월 22일(병오).

서적 인출을 담당했던 교서관에는 야장(冶匠) 6, 균자장(均字匠) 140, 인출장(印出匠) 20, 각자장(刻字匠) 14, 주장(鑄匠) 8, 조각장(彫刻匠) 8, 목장(木匠) 2, 지장(紙匠) 4인의 장인이 있었다.¹⁹⁾ 이 가운데 야장, 주장, 조각장 등은 금속활자의 주조에 필요한 장인으로 훈련도감에서 목활자를 제작하는 데에는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서적 인출은 균자장, 인출장, 각자장, 목장, 지장의 5개 분야 장인의 협동작업으로 가능한 일이지 어느 장인 단독으로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기술을 가진 병사가 일과 이외의 시간에 서적을 인출하여 판매하려면 적어도 이 5개 분야의 장인들이 협동했을 때 가능하다. 그런데 이 시기의 장인들이 스스로 협동하여 서적의 제작, 판매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그들이 자본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훈련도감에서의 서적 인출은 병사들이 여가시간에 사사로이 판매하기 위해 서적을 인출했다기보다는 둔전 혁파 이후 훈련도감에서 서적의 인출을 담당했던 장인이나 병사들이 공식적인 업무로 서적을 인출하여 판매함으로써 훈련도감의 재정 확충에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훈련도감의 판매용 서적의 인출은 광해군 즉위 후부터라고 보면 무방할 듯하다.

3.3 목활자의 제작 이유

훈련도감에서 서적을 인쇄할 때 목활자를 사용한 이유에 대해 일반적으로 임병양란을 겪으면서 금속활자를 주조하기 곤란하기 때문이라고 본다.²⁰⁾ 그런데 각자(刻字)할 목판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활자를 많이 사용했다는 다음 기록이 눈에 띈다.

[금속]활자를 주조하여 서적을 간행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창시한 것이지 중국에 있었던 것은 아니다. 임진왜란 뒤에 각자(刻字)할 판을 구하기 어려워서 활자를 많이 사용하였으나 교정이 잘 되지 않아 틀리기 쉬웠으니 한스럽다.

19) 「경국대전」, 공전 / 경공장 / 교서관(校書館).

20) 리철화, 「조선출판문화사」, 한국문화사, 1996, 341.

조종조(祖宗朝) 때에는 모든 서책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감인관(監印官)을 곤장으로 때렸으므로 잘못된 글자가 아주 없어졌다고 들었다. 또 중국에서는 책관을 배나무·대추나무 등의 잡목으로 하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오직 가죽나무만 사용하였던 까닭에 판자(板子) 구하기가 매우 어려워져 책을 간행하여 넓게 배포하지 못하였으니 이것은 우리나라의 졸렬한 처사였다. 『지봉유설 21』

이수광에 의하면, 목판의 판목으로 중국에서는 배나무나 대추나무 등의 잡목을 사용하는 데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가죽나무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각자할 판목을 구하기 어려워 목판 인쇄가 용이하지 않아 임진왜란 후에 활자를 사용했다고 한다. 이때의 활자는 물론 목활자를 지칭한다고 본다. 임란 후 목활자를 많이 제작하여 사용했던 것은 전쟁으로 산천이 피폐하였으므로 판목을 구하기 어려워 목판보다는 나무가 적게 들었기 때문이라고 파악된다.

3.4 서적의 인출 담당부서

훈련도감에서 책을 인출했다면 어느 부서에서 담당했을까? 그리고 몇 부 정도 인출했는가? 이는 1636(인조 14)년에 이식이 「고사촬요」를 증보하고 쓴 발문[重修攷事撮要後序]에서 그 실마리를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고사촬요의) 편찬 작업을 마무리한 뒤에 훈련도감의 감서국(監書局)에 넘겨 활자로 인쇄토록 하였는데, 지부(地部, 호조)가 이때 종이 비용을 아끼려고 한 나머지 겨우 수백 본(本)만을 간행하게 되었으니, 애석하다고 하겠다. (후략)

송정(崇禎) 병자년(1636, 인조 14) 정월 그믐에 통정대부 성균관대사성 지제교 이식은 삼가 쓰다.²²⁾

21) 이극익, 『연려실기술』, 별집 제14권, 문예진고(文藝典故), 주자(鑄字).

22) 이식, “중수 <고사촬요>의 뒤에 쓴 글[重修攷事撮要後序],” 『택당집(澤堂集)』, 제9권, 自癸丑至乙亥。則悉倣魚氏之舊。不敢私有起例。嫌於史也。編既成。付訓練都監書局。用活字印出。而地部以時詘斬紙費。纔印數百本。惜也。前本之在民間者尙多。其欲正其繆者。當準此本鐫改可也。仍筆其事於後。崇禎丙子元月晦。通政大夫成均館大司成知製教李植謹識。

위의 글에 의하면, 인조조인 1636년에는 훈련도감 내에 서적 인출을 담당했던 <감서국>이라는 부서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훈련도감 내의 감서국이 어떻게 조직되어 있으며,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담당했는지는 파악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국가의 여러 기관에 배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인출하는 경우에는 「고사촬요」와 같이 수 백부를 인출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발문을 쓴 이식은 수 백부를 인출했음에도 종이를 아끼려고 너무 적게 인출했다고 애석해 하고 있다.

훈련도감에서 서적을 인출할 때 장인이 관여했음을 「승정원일기」의 다음 기사, <서적 인출을 위해 錄勳都監 등에 가 있는 千天男 등을 도로 데려다가 부역시키기를 청하는 교서관의 계>를 통해 가늠할 수 있다.

鄭廣成, 以校書館官員言啓曰, 前因戶曹啓辭, 應入紙地, 如是浩大, 則詩·書件數, 量減磨鍊, 俾無弊事, 傳教矣。其中國用各四十件內, 各十件, 量減印出, 元單子內, 改付標, 宜當 且均字匠, 自前移文平壤匠人, 例爲捉來使喚, 而今見平安監司移文, 則冬防正急守城之際, 一人有關云, 無意起送, 不得已前日館書籍印出時, 願立私匠人千天男·宋義興, 及本館刻字匠白愛福·申得男, 印出匠孫興立等, 盡爲移去于錄勳都監·訓鍊都監·號牌廳, 更無餘存匠人, 上項匠人等還役本館事, 竝爲捧承傳施行, 何如? 傳曰, 依啓。號牌廳匠人, 勿爲使喚。²³⁾

그런데 훈련도감의 서적인출에 장인 외에 기술을 익힌 훈련도감의 병사가 동원되었을 가능성을 짐작하게 하는 실록의 기사가 발견되었다.

사헌부가 아뢰기를,
“국가가 보인(保人)을 주고 급료를 지급하면서 훈련도감의 군졸을 기르는 까닭이 어찌 그 자신만 넉넉히 재주를 갖게 하는 것일 뿐이겠습니까. 군사가 된 사람으로서 포(砲)를 맡은 자는 포를, 검(劍)을 맡은 자는 검을, 활쏘기를 맡은 자는 활을 쏘아 위급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쓰임이 되게 해야 마땅한데,

23) 「승정원일기」, 인조 3년 10월 21일(병신), 원본9책/탈초본1책(9/12), 1625년 天啓(明 熹宗) 5년.

그 본업(本業)을 버리고는 다른 기술을 닦아 일을 삼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석수(石手)·목수(木手)·숙수(熟手)와 금·은 등의 온갖 기술에 이르기까지 모두 배워 능숙한 것처럼 행동하는 여염의 공장(工匠)과 다른 점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장관(將官)이 된 자 역시 부리기에 편리한 점 때문에 더 이상 단속하지 않고 있으니, 훈국(訓局)을 설치하여 군사를 조련하는 뜻이 어찌 이와 같겠습니까.

(중략) 지금부터 도감 군사로서 본업을 버리고 딴 기술을 배우는 자는 조사해 내어 금단하고, 사사로이 사역시키지 못하게 하소서. (후략).”

하니, 답하기를,

“아뢰 대로 하라. 황해 감사와 병사는 별로 잘못된 것이 없으니 추고하지 말라. 훈국의 군졸이 딴 기술을 배워 익히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 그러나 이는 대장이 참작하여 처리할 일이지 조정이 간여할 일은 못 된다.” 하였다.²⁴⁾

위의 기록에 의하면, 1631(인조 9)년에 훈국, 즉 훈련도감의 군사가 본업을 버리고 온갖 기술을 배워 공장처럼 기물 제작에 참여했는데, 이는 도감 장관의 묵인 아래에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국가적으로 볼 때에는 본업을 소홀히 하게 되므로 지탄의 대상이 되었던 것 같다. 도감 장관이 묵인한 이유는 도감군사들이 물건을 제작하여 사사로이 팔았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수익은 훈련도감의 경비조달용이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도감 군사들이 배운 기술 가운데 위에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목활자 제작기술도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3.5 인출한 책의 유형

훈련도감에서 책을 인출할 때 주로 어떤 종류의 책을 인출했으며, 대략 몇 부를 인출했을까? 이는 서적 인출 목적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인다. 즉 국가의 필요에 의해 서적을 제작할 때와 훈련도감에서 경비조달을 위해 자체적으로 제작할 때가 달랐을 것으로 추측된다.

국가의 필요에 의해 제작한 책으로는, 우선 훈련도감에서 군사를 훈련할 때 필요한 군사용 교재를 들 수 있다. 1605(선조 38)년 11월 7일 훈련도감이 「연병실기」 간행에 대해 문의하였는데, 이에 대해 선조가 신하들과 논의하는 것을 보면

24) 「인조실록」 권25, 인조 9년 7월 8일(경진).

다음과 같다.

“지금 이 신서(新書)를 찬출(撰出)하는 의도는 산융(山戎)을 방어하는 데에 있는데, 모두가 거전(車戰)의 방법입니다 우리나라는 산천이 험조하여 평탄한 중원[중국]의 지세와 매우 다르고, 개국 이래 일찍이 거전을 익히지 않아서 그 제도가 전해지지 않고 습속도 익숙지 않습니다. 대개 방서(方書)를 인출 반포하여 사졸을 교련하려 함은 장차 쓰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교(韓嶠)로 하여금 도감을 교훈하여 그 범규만을 전습할 따름이라면 그것은 오히려 가하거니와 만약 오랑캐를 방어하기에 이롭다고 생각하여 훗날 시용(試用)의 계책을 삼는다면 불가합니다. 이 책자를 인출하여 전습(傳習)하는 일은 오늘날의 급무가 아닌 것 같습니다.”²⁵⁾

위에서 보듯이 「연병실기」가 거전의 방법인데, 이 진법은 오래되었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지세에 맞지 아니하여 병사들에게 가르쳐 훈련하기에는 부적절하므로 인출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이를 볼 때 군사들의 교육과 훈련에 필요한 병서(兵書)를 인출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고사촬요와 같이 국정 수행에 필요한 책도 훈련도감에서 간행했음을 볼 수 있다.

(「고사촬요」는) 어숙권(魚叔權)이 오래도록 이문학관(吏文學官)으로 재직하면서 처음 이 책을 엮었는데, 이는 대체로 괴원(槐院, 승문원의 별칭임)의 고실(故實)을 정리해서 뒷날 고찰할 수 있게끔 한 것이었다. 이와 함께 잡기(雜記)도 부기(附記)하였는데, 이는 일용(日用)에 대단히 절실한 것으로서, 대개 사대(事大)하는 일을 위주로 한 것이었다. (중략) 국가의 사승(史乘)에 담긴 내용은 비밀스럽기 그지없는 것인 만큼, 금궤(金匱) 석실(石室)에 보관된 사실(史實)은 사관(史官)이 아니고서는 엿볼 수가 없는 형편이다. 그런데 이 책이 간행된 덕분에 조야(朝野)에서 그런대로 정험하며 확인할 수가 있게 되었으니, 이 책이야말로 하루도 없어서는 안 될 책이 분명하다. (중략) 이렇게 편찬 작업을 마무리한 뒤에 훈련도감(訓練都監)의 감서국(監書局)에 넘겨 활자판으로 인쇄토록 하였는데, 지부(地部, 호조)가 이 때 종이 비용을 아끼려고 한 나머지 겨우 수백 분(本)만을 간행케 되었으니, 애석하다고 하겠다.²⁶⁾

25) 「선조실록」 권191, 선조38년 11월 7일(정축).

26) 이식, “중수 「고사촬요」의 뒤에 쓴 글[重修考事撮要後序],” 「택당집(澤堂集)」 제9권.

다음으로 판매를 위한 책인 경우에는 「창려집」과 같이 평범한 일반 선비들에게 인기가 있는, 시문집 위주로 인출했음을 알 수 있다.

도감에서 둔전(屯田)을 혁파한 이후로는 모든 군량을 충족시키는 방도라면 반드시 세소한 일까지 다 빠뜨림이 없이 추진해 오면서, 간혹 여러 서책을 간행하여 이를 팔아서 군량을 저축하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뒤에 안평대군(安平大君)이 쓴 인본(印本) 두어 서책을 얻어 이를 베껴 새겨서 활자로 만들어 놓으니, 글자 모양이 원만하여 사랑스러웠다. 그래서 이 활자를 가지고 맨 먼저 이 책을 인쇄해 놓으니, 이에 호사(好事)하는 사대부들이 서로 다투어 사려고 달려왔다. 마침내 이것을 팔아서 때에 따라 소모시키기도 하고 불리기도 하면서, 그 잉여분이 축적되자, 고인(庫人)이 여유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중략)

다만 한스러운 것이 있다면, 간행하는 책들을 대부분 소질(小秩)을 표준으로 삼아서 팔리기 쉬운 방도를 구하고 있고, 심지어 고경 대전(古經大傳)에 이르러서는 마치 「소서(素書)나 은문(隱文)²⁷⁾처럼 여기어 속사(俗士)들이 팔을 내저어 돌아보지도 않으므로, 이 고경 대전을 간행할 겨를이 없는 점이다.²⁸⁾

이러한 사실로 볼 때, 판매가 목적이므로 「창려집」과 같이 평범한 선비들에게 인기가 많고, 분량이 적은 소질로 편철된 시문집을 주로 인출했음을 알 수 있다. 분량이 적으니 인출하기가 용이하고, 가격도 높지 않아 판매하기에도 용이해서 선호했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고경대전은 분량도 많을 뿐 아니라 내용도 진부하므로 평범한 일반 선비들이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볼 때 훈련도감에서는 판매하기 위해 책을 인출할 때에는 시장성이 높은 책 위주로 출판하여 수익을 극대화했음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살펴듯이 훈련도감의 서적 인출은 훈련도감의 기능수행을 위해 병사들의 훈련 교재 출판, 국정수행을 위한 참고문헌 출판, 훈련도감의 경비마련을 위한 판매용 서적 출판 즉 군사용, 국정수행용, 판매용 서적 출판으로 의 세 영역으로 대분할 수 있다.

27) 소서(素書)나 은문(隱文): 「소서」는 진(秦)나라 때 황석공(黃石公)이 지은 병서(兵書)이고, 은문은 은어(隱語)와 같은 뜻으로, 부정한 문자를 의미한다.

28) 이항복, 「백사집(白沙集)」 권2, “훈련도감(訓鍊都監)에서 한창려집(韓昌黎集)을 간행한 데 대한 말.”

4. 훈련도감 간행본의 분석

선행연구와 규장각을 비롯한 도서관 등의 장서목록을 조사하여 훈련도감에서 인출하였거나 훈련도감 목활자로 인출한 서적으로 확인한 92종을 대상으로 주제, 간행연도, 활자체를 분석하였다.

4.1 주제

훈련도감 간행본 92종²⁹⁾을 경사자집의 사부분류법에 따라 주제를 분석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훈련도감 간행본의 주제 분석

대분류	소분류	종(%)	서명
경부	시류	2종(2%)	시경언해, 시전대전
	서류	1종(1%)	서전대전
	예류	1종(1%)	예기대문
	춘추류	4종(4%)	좌전유초, 춘추경전집해, 춘추집전대전, 춘추호씨전
	사서류	3종(4%)	논어언해, 논어집주, 대학언해
	효경류	1종(1%)	효경대의
	소학류	2종(2%)	사성통해, 증속회통운부군육
	소계	14종(15%)	
사부	사초류	4종(4%)	사찬초선, 사찬, 사한일통, 한사열전초
	전기류	3종(3%)	송조명신언행록, 역대장감박의(2종)
	잡사류	1종(1%)	서정록
	정법류	4종(4%)	사대문계, 호패사목, 경국대전, 대전속록
	소계	12종(13%)	

29) 훈련도감 간행본에 대한 확인은 접근의 어려움 때문에 김두중, 천해봉, 김수형의 연구에서 훈련도감 간본이라고 밝힌 서적의 목록을 작성하고, 역사정보통합시스템을 통하여 규장각이나 국립중앙도서관 및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 등 고서를 소장하고 있는 도서관의 장서목록에 목활자본(훈련도감자)라고 명기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대신하였다. 선행연구에서 훈련도감 간본이라고 하더라도 장서목록에서 훈련도감자라고 밝히지 않은 것은 제외하였다. 다만 「동의보감」과 「신찬벽운방」의 경우, 내의원에서 간행하였기 때문에 장서목록에서 ‘내의원자’로 명기된 곳도 있었다. 하지만 훈련도감에서 만든 활자로 인출하였으므로 이 연구에서는 포함하였다.

자부	유가류	5종(6%)	근사록, 내훈, 소학제가집주, 소학집설(2종)
	도가류	3종(3%)	주역참동계본장주, 주역참동계통진의, 주역참동계해
	병가류	9종(10%)	기효신서(2종), 기효신서절요, 동국병감, 무경총요행군수지, 병장설, 신기비결, 제갈공명심서, 진설
	의가류	10종(11%)	간이벽온방, 군중의약, 동의보감, 벽역신방, 식물본초, 신응경, 신찬벽온방, 의림촬요, 향약집성방, 보영집
	천문산법류	2종(2%)	제가역상집, 천문유초
	유서류	2종(2%)	고사촬요(2종)
	소계	31종(34%)	
집부	총집류	14종(15%)	영규율수, 천고문란, 선문정수, 선문철영, 당률광선, 당칠언고시정선, 문선(2종), 상설고문진보대전, 동문선, 속동문선, 황화집(3종)
	별집류	18종(20%)	각세문중, 두소룡선생시집주초, 찬주분류두시, 분류보주이태백시, 산곡내집시주, 산곡외집시주(2종), 당류선생집, 수계선생평점간제시집, 주문공고창려선생집, 증간교정왕정원집주분류동과선생시, 간이문집, 경리어사양선생송덕시고, 상촌고, 퇴우정기, 소재선생문집, 오음선생유고, 읍취현유고
	초사류	3종(3%)	초사, 초사변증, 초사후어
	소계	35종(38%)	
합계		92종(100%)	

위에서 보듯이, 훈련도감 간본의 주제는 집부 34종(37%), 자부 31종(34%), 경부 14종(15%), 사부 12종(13%)의 순이다. 군사기구인 훈련도감에서 인출한 92종의 서적 가운데 38%에 해당하는 35종이 집부의 서적이다. 집부 별집류의 시집과 문집이 19종, 총집류의 총집과 선집이 14종, 초사가 3종인데, 총집과 별집은 모두 당대 인기가 많았던 당송(唐宋)의 시집과 문집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책들은 훈련도감의 둔전 혁파 이후 훈련도감의 경비조달을 위한 판매용으로 인출되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조선에서 편찬된 것은 총집류에서는 14종 가운데 동문선, 「속동문선」, 「황화집」의 3종이고, 별집류에서는 19종 가운데 「상촌고」, 「퇴우정기」, 「소재선생문집」, 「오음선생유고」, 「읍취현유고」의 5종이다.

다음으로 자부의 서적이 34%에 해당하는 31종이다. 이 가운데 의가류의 의서가 10종, 병가류의 병서가 9종을 차지한다. 의서 출판은 임란 후 전염병 치료를 위한 민심 수습용이라 할 수 있으며, 병서출판은 훈련도감의 군사를 훈련하기 위한 내부용이라 할 수 있다. 사부 정법류나 자부의 유서류의 서적은 국정운영을 위한 참고용이라고 할 수 있다. 도가류의 서적인 「주역참동계(周易參同契)」는

우주 원칙에 순응하여 단(丹)을 연마하고 연명장수(延命長壽)의 목적 달성을 역(易)의 원리로써 풀이한 책인데,³⁰⁾ ‘연명장수’가 대중들에게 인기가 있었을 것이고, ‘수련’이 병사들의 훈련에도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파악된다.

경부의 서적을 보면, 오경 가운데 주역을 제외한 시·서·예·춘추가 간행되었는데, 춘추가 4종이나 간행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처럼 훈련도감에서는 재정 확충을 위한 판매용의 시문집 출판 이외에도 전염병 확산이라는 위기상황 타개를 위한 의서 출판, 군사훈련을 위한 병서 출판, 국정운영을 위한 법전 등의 정법서 출판 등 다양한 주제의 서적을 인출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훈련도감은 임진왜란 직후부터 국가 산하기관들이 제 기능을 온전히 회복하기 전까지 국가의 통치에 필요한 각종 문헌을 인출하여 국가 간행물 제작기관의 기능까지 수행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4.2 간행연도

훈련도감 간행본 92종의 간행연대를 분석하면,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훈련도감 간행본의 간행연도 분석

역조	종(%)	간행연도	분 류			
			경	사	자	집
선조	12종 (13%)	1599(선32)			무경총요행군 수지	
		1600년대 초			근사록	
		1602				황화집
		1603			신기비결, 진설	
		1606				황화집
		1608(선41)			동국병감	황화집

30) 『주역참동계』는 중국의 후한 말부터 삼국 시대 초기의 사람으로 짐작되는 위백양(魏伯陽)의 저술로서 『도덕경』에 이어 도교에서의 수련에 많이 쓰이는 저서이다.
 “주역참동계”, 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wiki/%EC%A3%BC%EC%97%AD%EC%B0%B8%EB%8F%99%EA%B3%84>>, 2009.6.15 접속.

		1600-1622	논어집주					
		1600-1630					선문철영	
		1601-1622		역대장감박의				
		1603-1649			천문유초			
		소계	1종	1종	6종		4종	
광해군	47종 (51%)	1610(광2)					주문공교창려선생집	
		1611	춘추경전집해, 대학언해		내훈			
		1612	논어언해	사찬조선, 사찬	소학제가집주			읍취현유고 상설고문진보대전
		1613	시경언해	경국대전 대전속록	고사촬요, 간이벽은방, 동의보감, 벽역신방, 신찬벽은방			
		1614	사성통해					
		1615						찬주분류두시
		1616						분류보주이태백시, 퇴우정기
		1617						경리어사양선생송덕시고
		1619(광11)		사대문괘				
		1608-1623 (광해군연간)	서전대전, 예기대문	한사열전초	주역참동계분장주, 주역참동계통진의, 주역참동계해, 제갈공명심서, 군중의약	두소릉선생시집주초, 산곡내집시주, 수계선생평절간재시집, 증간교정왕장원집주분류동파선생시, 초사, 문선(2), 영규율수, 동문선, 속동문선		
		1609-1636						초사변증, 초사후어
		1609-1649		송조명신언행록				
		1609-1659	증속회통운부군옥			소학집설		
		소계	8종	7종	13종			19종
인조	22종 (24%)	1623(인1)	춘추호씨전					
		1624					소재선생문집	
		1625		호패사목				
		1629			소학집설		상촌고	
		1631	효경대의				간이문집	
		1633			향약집성방			
		1634					당률광선	
		1635			의림촬요		오음선생유고	
1636	좌전유초		고사촬요, 식물분조					

17세기 훈련도감의 인쇄·출판 활동

		1643(인21)			신응경	
		1623-1649		서정록	기효신서	각세문종, 천고문란, 선문정수.
		1623-1659		사한일통		
		1623-1674	춘추집전대전			
		소계	4종	3종	7종	8종
효종	1종 (1%)	1658(효9)		역대장감박의		
		소계		1종		
현종	1종 (1%)	1664(현5)			기효신서	
		소계			1종	
연대 미상	9종 (10%)		시전대전		기효신서절요, 병장설, 제가역상집, 보영집	당류선생집, 당철연고시정선, 산곡외집시주(2)
		소계	1종		4종	4종
합계	92종 (100%)		14종	12종	31종	35종

조사한 바에 의하면, 훈련도감에서 서적을 인출한 시기는 「무경총요행군수지」가 간행된 1599(선조32)년부터 「기효신서」가 간행된 1664(현종5)년까지 65년 동안으로서 이 기간 동안 92종을 간행하였다.

1594년 훈련도감이 창설된 이후 훈련도감 간본의 추이를 역조별로 보면, 광해조 47종(51%), 인조조 22종(24%), 선조조 12종(13%), 효종조 1종(1%), 현종조 1종(1%)의 순이며, 광해조에 현존하는 훈련도감본의 반수 이상이 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선조조(1567-1608)에는 1594(선조27)년 훈련도감이 창설된 이후 5년만인 1599년에 처음으로 병서인 「무경총요행군수지」가 간행되었으며, 이후 1603년에 「신기비결」, 「진설」의 2종, 1608년에 「동국병감」 등 4종의 병서가 출판되었고, 사부의 전기류의 「역대장감박의」도 내용은 군대와 관련이 깊다. 이 책은 전국(戰國)시대의 손무(孫武)에서 오대(五代)의 곽숭도(郭崇韜)에 이르는 94명의 중국역대 명장(名將)의 인품과 행적, 그들에 대한 후인의 평가를 모아 편찬한 책이다. 그리고 중국사신과 우리 조정 접빈사 사이의 주고 받은 시집인 「황화집」

이 3종 간행되었다.

광해조(1608-1623)에는 훈련도감 간본의 51%에 해당하는 47종의 서적이 출판되었는데, 이 시기는 둔전혁과 이후 훈련도감이 자금조달을 위해 책을 출판하기 시작했다는 기록에서도 알 수 있듯이 판매용 책들이 다수 출판되었다. 대중적으로 인기 있는 집부의 시문집이 19종이나 간행되었다. 전국시대 초나라 굴원(B.C 343? - B.C 278?)의 「초사」, 「초사변증」, 「초사후어」, 당나라 이백(701-762)의 「분류보주이태백시」, 두보(712-770)의 「찬주분류두시」, 「두소룡선생시집주초」, 송나라 한유(768-824)의 「주문공교창려선생집」, 소식(1037-1101)의 「동파선생시」, 황정견(1045-1105)의 「산곡내집시주」, 진여의(1090-1138)의 「수계선생평점간재시집」 등이 주류를 이루고, 여러 문인의 시문을 모은 총집인 「상설고문진보대전」, 「문선」, 「영규율수」 등도 간행되었다. 「영규율수」는 당송 양대의 율시를 모은 시선집이다.

우리나라에서 편찬한 것은 「동문선」과 「속동문선」, 「읍취현유고」, 「경리어사양선생송덕시고」, 「퇴유정기」의 5종에 불과하다. 「경리어사양선생송덕시고(經理御史楊先生頌德詩稿)」는 임진왜란 때 조선을 돕기 위해 명나라에서 파견되었다가 패하고 본국에 돌아가 사형당한 명나라의 장수 양호(楊鏞)의 사당을 건립하고 송덕을 기리는 시 53편을 모아 간행한 책이다. 그 외 「읍취현유고」는 조선중기의 학자인 박은(1479-1504)의 시문집이다.

광해조에 선조조보다 경서가 많이 인출된 것은 경서도 판매용으로 인출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이항복이 일반선비들이 좋아하는 소질 위주로 간행했기 때문에 고경대전을 간행하지 못함을 안타깝게 여겼는데, 그 후에 과거공부를 위해서는 경서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지속되었으므로 간행했다고 보아진다. 그런데 경서도 오경대전 같은 총서 형식의 거질이 아니라 단품 형식으로 간행되었다. 이 시기에 나타난 경서는 오경 가운데 시(「시경언해」), 서(「서전대전」), 예(「예기대문」), 춘추(「춘추경전집해」)의 4종과 사서 가운데 「대학언해」, 「논어언해」의 2종, 그리고 소학류의 운서로 최세진의 「사성통해」 및 음시부의 「운부군옥」을 증보한 「증속회통운부군옥」의 2종이 간행되었다. 「증속회통운부군옥」은 38권 38

책의 거질임에도 불구하고 훈련도감에서 간행한 것은 운서가 시문을 창작하는데 필수적인 공구서이기 때문에 수요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사서(史書)도 전고를 인용하는 데 필수적이므로 사마천의 「사기」를 간략히 한 「사찬초선」과 「사찬」 및 최립(崔崱, 1539-1612)이 초학자의 고문(古文) 학습에 도움을 주려는 목적에서 「사기」와 「한서」에서 열전을 선정하고 구절을 붙인 「한사열전초」의 3종이 간행되었다. 이 3종의 공통점은 모두 거질의 역사서에서 초한 간략본으로서 일반 선비들이 접하기 간편한 소질이라는 점이다.

사부 가운데 법전인 「경국대전」과 「대전속록」, 외교문서집인 「사대문궤」, 백과사전격인 「고사촬요」 등은 국정 수행의 필요에 의해 간행되었다고 파악된다.

특이한 점은 1613(광해군5)년에 의서가 4종이나 간행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1612(광해군4)년에 함경도를 중심으로 크게 유행했던 전염병과 관련이 깊다고 판단된다. 1612년 5월에는 함경도의 육진(六鎭)에서 남관(南官)까지 전염병이 없는 고을이 없을 지경이었는데³¹⁾ 이 기세는 수그러들지 않고 서울에까지 전염이 되었다. 그리하여 “날씨가 고르지 않아 여역의 재앙이 외방만 그러할 뿐 아니라, 서울에서도 점점 성하게 일어나 계속 전염되어 죽는 자가 꽤 많으니, 장래에 궁성 가까운 곳에서 일어날 사태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³²⁾고 하였는데, 이를 통해 볼 때 전염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단지 연전에 전염병이 크게 성해서) 사망자가 거의 1만여 명에 이르러서 변방에는 사람이 없습니다.”³³⁾로 볼 때 전염병으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엄청났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전염병의 전국적인 확산과 엄청난 피해를 경험하면서 의서가 4종이나 한꺼번에 출판되었다고 볼 수 있다.

동의보감은 “원래 1596년(선조 29) 선조의 명에 의해 편찬이 착수된 뒤 정유

31) 「광해군일기」 권53, 광해군 4년 5월 28일(신유), 함경 감사가 치계하였다. “각 고을이 보고한 바에 의하여 전염병이 날로 극성을 부리고 있는데, 육진(六鎭)에서 남관(南官)까지 어느 고을이고 그렇지 않은 곳이 없다고 하니, 해당하는 약을 속히 내려 보내소서.”

32) 「광해군일기」 권61, 광해군 4년 12월 15일(갑진).

33) 「광해군일기」 권79, 광해군 6년 6월 25일(병오).

재란으로 중단되었다가 광해군이 즉위한 뒤인 1610(광해군 3)년에 완성된 것이다. 이 책은 방대하고도 상세한 내용으로 실용성이 높았기 때문에 활자로 초간된 이후 여러 번에 걸쳐 목판으로 복각되거나 중간되었으며, 중국과 일본에서까지 간행되기도 하였다. "내[박지원] 집에는 좋은 의서가 없어서 매양 병이 나면 사방 이웃에 돌아다니며 빌려 보았더니, 이제 이 책을 보고서 몹시 사 갖고자 하였으나, 은 닷 냥을 낼 길이 없어서 섭섭함을 이기지 못한 채 돌아왔다"³⁴⁾는 기록을 볼 때 「동의보감」이 중국에서도 판매되었으며, 가격은 은 5냥이었음을 알 수 있다. 상평통보 1냥은 현재 가격으로 환산하면 대략 2만원 정도로서, 은과 상평통보의 비율은 1 : 4이므로 은5냥은 상평통보 20냥에 해당한다. 이를 현재시세로 환산하면, 40만원이 된다.³⁵⁾ 즉 「동의보감」이 은5냥이어서 박지원이 비싸서 사지 못했다고 하였는데, 현재시세로도 40만원 남짓하니 구입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고가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광해조에 도교의 책이 「주역참동계분장주」, 「주역참동계통진의」, 「주역참동계해 의 3종이나 간행된 것도 특이하다. 이 책들은 모두 중국 동한(東漢) 환제(桓帝, 147-167) 시대에 위백양(魏伯陽)이 저술한 「주역참동계(周易參同契)」에 대한 연구서이다. 「주역참동계」는 가장 오래된 연단술(煉丹術)³⁶⁾에 관한 책으로 「주역」속에 포함되어 있는 상수학(象數學)을 빌려 저술한 단학(丹學) 경전이다.³⁷⁾ 즉, 「주역」의 괘와 효의 상을 빌어 연단(煉丹)을 논하고 있는데, 연단을 통해 신선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³⁸⁾ 송(宋)나라 무렵부터는 먹는 약보다 정신수양

34) 박지원, 「열하일기」 중 <구외이문(口外異聞)>에서 “동의보감(東醫寶鑑).”
 35) 신병주·노대환, 「고전소설 속 역사여행」(서울: 돌베개, 2005), 265, 개정증보판 참조.
 36) 연단술(煉丹術)은 고대 중국에서 도사(道士)가 진사(辰砂)로 황금이나 약 같은 것을 만들었다고 하는 일종의 연금술로서 복용하면 늙지 않고 죽지 않으며, 몸이 가벼워져 하늘을 날 수 있고, 귀신을 부림으로써 변신 등의 초능력을 지니는 신선이 될 수 있다는 단약(丹藥)을 만들고자 고대 중국에서 시도되었던 기술이다. 당(唐)나라 때에는 단약을 복용하여 갑자기 죽기도 하고 괴로움을 겪다가 죽은 황제가 적어도 5명은 있었다. 신선이 되려면 단약을 복용하는 것 외에도 정신적·육체적 수업(修業)을 쌓고, 선인이 부과하는 일종의 자격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37) 이윤희 옮김, 「국역 參同契闡幽」(서울: 驪江出版社, 1989), 25.
 38) 朴文鉉, “周易과 氣功: 「周易參同契」를 중심으로,” 「한국정신과학학회지」 제4권 제2호

에 중점을 두었으며, 단약 제조 과정과 정신수양의 과정을 대응시켜 단약 제조과정을 외단(外丹), 정신수양 과정을 내단(內丹)이라고 하였다. 내단인 정신수양은 무술을 단련하는 훈련도감의 병사들에게 필수적이므로 병사들의 정신수양 교육을 위해 훈련도감에서 「주역참동계(周易參同契)」의 주석서를 3종이나 간행했던 것이 아닌가 한다.

인조조(1623-1649)에는 훈련도감 간본의 24%에 해당하는 22종의 서적이 간행되었다. 경서 가운데 「춘추」가 「춘추호씨전(1623)」, 「좌전유초(1636)」, 「춘추집전대전(1623-1674)」의 3종이나 간행된 것은 인조반정과 관련이 있다고 보아진다. 「춘추」가 가장 강조하는 것이 정명분(正名分)으로 이는 사물의 명분을 바르게 한다는 뜻과 군신 상하 간의 명분을 바르게 한다는 두 가지의 뜻이 있다.³⁹⁾ 광해군을 폐위한 인조반정을 정당화하기 위해 춘추를 집중 간행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1631년에 효경대의가 간행된 것은 광해군이 어머니인 인목대비를 서궁에 유폐한 불효(不孝)를 바로잡고 효(孝)를 대내외에 선양하기 위해 간행한 것으로 파악된다.

인조조에는 선조조나 광해조와는 달리 판매용으로 보기 어려운 개인 문집이 4종이나 간행되었다. 노수신(盧守愼, 1515-1590)의 「소재선생문집」, 신흘(申欽, 1566-1628)의 「상춘고」, 최립(1539-1612)의 「간이문집」, 윤두수(尹斗壽, 1533-1601)의 「오음선생유고」인데, 전후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문집이 훈련도감에서 간행된 것은 피전자의 문장이 뛰어난 뿐 아니라 집권세력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문집의 저자들은 모두 정치적으로 서인으로서 신흘⁴⁰⁾의 경우, 1627년 정묘호란 때 좌의정으로 세자를 수행하고 전주에 피란하였으며, 9월 영의정에 올랐다가 세상을 떠났는데, 이듬해 훈련도감에서 문집이 간행되었다. 최립⁴¹⁾은 이이의 문인으로 국내외에서 명문장가로 이름을 떨쳤으며, 그

(2000. 12), 4.

39) 林東錫, 「中國學術綱論」(서울; 고려원, 1986), 100.

40) 신흘은 뛰어난 문장력으로 대명외교문서의 제작, 시문의 정리, 각종 의례문서 제작에 참여하였다. 정주(程朱)학자로 이름이 높아, 이정구(李廷龜)·장유(張維)·이식(李植)과 함께 한문학의 태두로 일컬어진다.

41) 최립은 시에 탁월하고 글씨는 송설체(松雪體)에 일가를 이루었고, 문장은 의고문체(擬古文

의 문집인 「간이집(簡易集)」과 「한사열전초(漢史列傳抄)」가 훈련도감에서 간행되었다. 윤두수는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기용되어 선조를 호종, 어영대장이 되고 우의정·좌의정에 올랐다. 1598년 다시 좌의정이 되고, 1599년 영의정에 올랐으나 곧 사직하였다. 문장이 뛰어났고 글씨도 일가를 이루었다. 인조반정의 주도세력인 장유(張維)와 김상헌이 「상촌고」와 「오음선생유고」의 서문을 썼고, 장유가 「간이문집」의 서문을 썼다는 사실이 이를 반증한다.

그리고 의서도 「향약집성방」, 「의림촬요」, 「식물본초」, 「신응경」 등 4종이나 간행되었다. 효종 이후 훈련도감 간본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은 도서관의 기능 회복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파악된다.

4.3 활자체

훈련도감 간행본 92종을 활자체별로 분석하면,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훈련도감 간행본의 활자체 분석

활자체		분 류			
활자명	종(%)	경	사	자	집
갑인자체	25종 (27%)	춘추경전집해 (1611)	경국대전 (1613)	근사록(1600) 신기비결(1603) 진설(1603) 동국병감(1608) 주역참동계통진의 (1608-1623) 소학집설 (1609-1659) 병장설(?) 기효신서절요 (?) 무경총요행군수지 (?) 의림촬요(1653)	황화집(1606) 분류보주이태백시 (1616) 산곡내집시주 (1608-1623) 영규율수(1608-1623) 문선(1608-1623) 중간교정왕장원집주 분류동파선생시 (1608-1623) 두소릉선생시집주초 (1608-1623) 찬주분류두시(1615) 선문정수(1623-1649)
		증속회통운부군옥 (1609-1659) 춘추집전대전 (1623-1674)	대전속록 (1613)	한사열전초 (1608-1623)	
소계		3종	3종	10종	9종

體)에 뛰어나 차천로(車天輅)의 시, 한호(韓濩)의 글씨와 함께 송도삼절(松都三絶)이라 하였다.

17세기 훈련도감의 인쇄·출판 활동

갑진자체	6종 (7%)	좌전유초 (1636)	송조명신 언행록 (1609-1649)	식물본초(1636) 기효신서(1664)	소재선생문집(1624) 상촌고(1629)
		1종	1종	2종	2종
경오자체	9종 (10%)	대학언해(?) (1611) 시경언해(?) (1613) 서전대전 (1608-1623) 효경대의(1631)	사찬조선 (1612) 사찬(1612)	소학제가집주 (?) (1612) 고사촬요(1613)	주문공교창려선생집 (1610)
	소계	4종	2종	2종	1종
경진자체	1종 (1%)	논어언해(1612)			
	소계	1종			
병자자체	4종 (4%)			기효신서 (1623-1649)	황화집(1602) 경리어사양선생송덕시고 (1617) 당률광선(1634)
	소계			1종	3종
을해자체 (갑인자체 혼입을해자체* 7종 포함)	28종 (30%)	예기대문(?) (1608-1623) 춘추호씨전(1623) 사성통해(1614)*	사대문쾌 (1619) 서정록 (1623-1649) 역대장감박의 (1601-1622)* 사한일통 (1623-1659)* 호패사목 (1625)*	내훈(1611) 신찬벽온방(1613) 간이벽온방(1613) 동의보감(1613) 벽역신방(1613) 신응경(1643) 천문유초 (1603-1649) 향약집성방(1633) 고사촬요(1636) 제가역상집(?) 보영집(?)	초사변증(1609-1636) 퇴우정기(1616) 오음선생유고(1635) 동문선(1608-1623) 속동문선(1608-1623) 문선(?) (1609-1623) 초사(1608-1623)* 초사후어(1608-1636)* 간이문집(1631)*
	소계	3종	5종	11종	9종
미확인	19종 (21%)	논어집주 (1600-1622) 서전대전(?)	역대장감박의 (1658)	주역참동계분장주 (1608-1623) 주역참동계해 (1608-1623) 제갈공명심서 (1608-1623) 군중의약 (1608-1623) 소학집설(1629)	선문철영(1600-1630) 황화집(1608) 수계선생평점간재시집 (1608-1623) 읍취현유고(1612) 상설고문진보대전 (1612) 산곡외집시주(2종) 천고문란(1623-1649) 각세문종(1623-1649) 당류선생집(?) 당철언고시정선(?)
	소계	2종	1종	5종	11종
합계	92종 (100%)	14종	12종	31종	35종

조사한 바에 의하면, 훈련도감에서 인출한 간본의 활자체는 을해자체가 28종(30%), 갑인자체 25종(27%), 경오자체 9종(10%), 갑진자체 6종(7%)의 순이며, 활자체를 확인되지 못한 책도 19종(21%)이나 된다. 을해자체 훈련도감과 갑인자체 훈련도감 인본이 53종(57%)로서 전체의 반이 넘는 것으로 볼 때, 이 두 활자체가 대중적인 인기를 누린 것으로 보인다.

이항복은 안평대군이 쓴 인본을 구해 활자를 만들어 1610년에 「주문공교장려선생집」을 인출했는데, 인기가 많았다고 하였는데, 이 활자가 경오자체 훈련도감자이다. 이 활자로 인출한 책이 「사찬」, 소학집설 이라고 하였는데, 이 경오자체 훈련도감자는 갑인자체나 을해자체에 비해 널리 사용되지는 않았던 것 같다.

5. 결 론

임란후인 1594년에 설치된 훈련도감은 임시로 설치된 기관이었으므로 경비가 책정되어 있지 않았다. 그리하여 둔전을 경영하여 운영자금과 병사들의 급료를 부담하였는데, 둔전의 폐해가 보고되면서 광해군 즉위 초에 둔전이 혁파되었다. 군사기관이므로 병사교육을 위한 병서출판의 기능이 있었는데, 둔전이 혁파됨으로 인해 자금 확보가 용이하지 않자 경비조달을 위해 서적을 인출하여 판매하였다. 훈련도감이 원래부터 서적 인출의 기능이 있었으니, 이는 기관 운영을 위한 필수서적이나 혹은 교서관의 기능 미비로 인한 국가 경영에 필요한 서적을 인출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었다. 그러나 훈련도감의 재정상황이 어려워지자 자금 조달을 위한 수익사업을 하게 되었으니, 판매용 서적의 인쇄·출판사업이다. 따라서 훈련도감의 서적 인출은 내부용과 판매용으로 구분할 수 있겠다. 군사 훈련을 위한 병서 출판이 내부용이라면 일반 대중을 위한 시문집 출판은 판매용이고, 국기기관이므로 국정 수행의 필요에 의해 인출하기도 하였다.

훈련도감의 서적 인출은 기관이 설치된 직후부터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며, 훈련도감 내 감서국에서 담당하였고, 판매용 서적의 출현은 둔전이 혁파된 광해

조 이후라고 하겠다.

훈련도감에서 간행하였거나 훈련도감 목활자로 간행한 서적을 주제별로 분석하면, 집부 34종(37%), 자부 31종(34%), 경부 14종(15%), 사부 12종(13%)의 순이다. 군사기구인 훈련도감에서 인출한 92종의 서적 가운데 40%에 가까운 35종이 집부의 시문집이라는 사실은 판매용 서적인 시문집 출판이 가장 활발했음을 보여준다. 다음이 자부의 서적 인출인데, 군사기구로서 병사 훈련을 위한 병서 출판과 전후의 전염병 수습을 위한 의서 출판이 두드러졌다.

서적을 인출한 시기는 「무경총요행군수지」가 간행된 1599(선조32)년부터 「기효신서」가 간행된 1664(현종5)년까지 65년 동안으로서 이 기간 동안 92종을 간행하였다. 훈련도감 간본의 추이를 역조별로 보면, 광해조(51%), 인조조 22종(24%), 선조조 12종(13%)의 순으로 출판이 이루어졌으며, 광해조에는 둔전의 혁파로 인해 판매용 서적의 인출이 활발하였기 때문이라고 파악된다. 훈련도감이 국가 기구이므로 집권세력인 서인과 관련이 깊은 인물의 문집이 인출되었다. 현종 이후에는 훈련도감 간본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은 교서관의 기능 회복과 관련이 깊다고 보아진다.

훈련도감에서 인출한 간본의 활자체는 을해자체가 28종(30%), 갑인자체 25종(27%), 경오자체 9종(10%), 갑진자체 6종(7%)의 순이다. 을해자체 훈련도감자와 갑인자체 훈련도감자 인본이 53종(57%)로서 전체의 반이 넘는 것으로 볼 때, 이 두 활자체가 대중적인 인기를 누린 것으로 보인다.

훈련도감은 전후의 어려운 시기에 교서관을 대신하여 국가의 주요한 지식과 정보의 유통에 크게 기여하였을 뿐 아니라 일반 선비들의 지식과 문화 향수의 욕구를 충족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조선중기 훈련도감이 판매를 위한 상업출판에 참여했음을 볼 때, 앞으로 상업출판 서적의 유통경로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져야 하겠다.

<참고문헌>

- 「經國大典」, 「國朝寶鑑」, 「宣祖實錄」, 「光海君日記」.
- 金斗鍾. “壬辰亂後의 活字印本: 實錄字와 訓練都監字.” 『진단학보』 제29·30호.
- 金秀亨. “訓練都監字本에 關한 研究.”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1978.
- 김중수. 『조선후기 중앙군제연구』. 서울: 혜안, 2003.
- 리철화. 『조선출판문화사』. 서울: 한국문화사, 1996.
- 朴文鉉. “周易과 氣功: 周易參同契 를 중심으로.” 『한국정신과학학회지』 제4권 제2호(2000. 12).
- 박지원. 『열하일기』 중 <구외이문(口外異聞)>에서 “동의보감(東醫寶鑑).” 신병주·노대환. 『고전소설 속 역사여행』. 들베개, 2005. 개정증보판.
- 이공익. 『연려실기술 별집』 제14권, 『문예전고(文藝典故)』, 주자(鑄字)
- 이식. 『택당집(澤堂集)』 제9권, “중수 <고사촬요>의 뒤에 쓴 글[重修考事撮要後序].”
- 이윤희 옮김. 『국역 參同契闡幽』. 서울: 驪江出版社, 1989.
- 이향복. 『백사집(白沙集)』 권2, “훈련도감(訓練都監)에서 한창려집(韓昌黎集)을 간행한 데 대한 발.”
- 林東錫. 『中國學術綱論』. 서울: 고려원, 1986.
- 천혜봉. 『韓國古印刷史』. 서울: 한국도서관학연구회, 1976.
- 천혜봉. 『한국목활자본』. 서울: 범우사, 1993.
- 국립중앙도서관 전자도서관. <<http://www.dlibrary.go.kr/WONMUN/Index.jsp>>.
-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http://e-kyujanggak.snu.ac.kr/index.jsp>>.
-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http://koreanhistory.or.kr/>>.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학술정보서비스. <<http://www.riss4u.net/index.jsp>>.